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중화 법타 대종사

"'捨教入禪' 숙고…이정표 잘 봐야 바른 길 간다"

12면에 이어

수행이 운전이면, 교리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잘 따라야 목적지 도착해
"평소 드는 화두는 'What is this'
정진하면 연기적 세계 깨닫게 돼"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은해사 조실인 중화 법타 대종사가 주석처인 거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1994년 7월 10일 연행된 법타 스님은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았다. 스님이 조사를 받은 방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숨진 곳이었다. 스님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찬양·고무 등 죄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출가자가 찬양하고 고무할 대상이 부처님, 보살님, 조사님들밖에 더 있겠어요?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은 뒤 저는 안양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저는 구치소를 수행처(修行處)라고 여기고 매일 지장기도를 올렸고 105일 뒤 풀려났습니다."

출소한 뒤에도 법타 스님은 평불협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0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1997년 사리원에 금강국수 공장을, 2006년 평양에 금강산빵공장을 설립했다. 금강국수 공장에서는 하루 7700명분의 국수가 생산됐다. 평불협의 대북지원금액은 5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교역은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마저 단절됨에 따라 국수 공장과 빵공장의 운행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법타 스님은 북한이탈주민 돕기에 매진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북한이탈주민 돕기 운동을, 진보진영은 북한주민 돕기 운동을 펼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수도 진보도 아우르는 것입니다. 불법(佛法)은 모든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3만5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조차 돕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2500여만 명의 북한주민을 돕겠습니까?"

법타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 재임 기간 중 '남순지장회(南順地藏會)'를 설립해 동국대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시작했다. 남순지장회는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장보살의 가피를 내리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지성호 국회의원도 남순지장회 소속 회원이다. 남순지장회 회원인 이위력 씨는 신혼 초 폐암에 걸려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법타 스님은 이위력 씨를 돕기 위해 7000여만 원을 모금해 전달하기도 했다.

"병고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한엔 핵 위협이 없고 북한엔 기아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타 스님의 희망이다.

애국, 애족, 애민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법타 스님은 군위 인각사에서 보각(普覺) 국사 일연(一然) 스님의 추모다례재 봉행을 정례화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법타 스님은 일연 스님에 대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분"이라고 평가했다.

"13세기에 고려 국민들은 몽골군과의 전쟁이라는 국난(國難)에 시달리고 난 뒤 속국의 국치(國恥)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상흔뿐인 상황에서 국사에 책봉된 일연 스님은 무엇으로 백성들을 위로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나라'는 말대로 일연 스님은 민족의 과거사라는 뿌리에서 민족의 미래사라는 줄기를 뻗게 하려고 〈삼국유사〉를 썼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설화부터 구전돼 내려오는 우리민족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5000년간 내려온 불보살님들과 조사님들과 중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가 없는 한국사와 불교사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얼을 일깨워준 만큼 일연 스님의 추모다례재는 정부나 종단 주도로 승격해서 봉행돼야 한다는 게 법타 스님의 생각이다.

법타 스님은 왕성한 사회활동에도 불구하고 36안거를 성만한 구참(久參) 수좌이다. 법타 스님이 안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선방에 드는 이유는 법(法)은사인 일타(日陀) 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법타 스님은 추담 스님이 입적하자 일타 스님에게 건당해 법상좌가 되었다.

법타 스님은 일타 스님에게서 포은(包隱)과 중화(中和)라는 두 개의 법호를 받기도 했다. 포은은 '은현자재(隱顯自在) 시명포은(是名包隱)'에서 따온 법호로서 불법의 정수를 은밀하게 지니고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드러내라는 의미이다. 정도(正道)에 어긋남 없이 사회화합에 앞장서라는 의미의 중화는 일타 스님이 법상좌가 사회활동가임을 염두하고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타 스님은 법타 스님에게 수시로 수행을 강조했다. 심지어 법타 스님이 수감 중일 때도 편지를 보내서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은사스님께서 12쪽의 서간(書簡)을 보내셨습니다. 서간 내용인즉슨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가 너에게 수행의 기회를 줬다. 그곳을 국립 선방으로 여기고 나올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소한 뒤에도 법타 스님은 안거철이 되면 선원에서 들어가 '이뭣고'를 화두로 삼아 용맹정진해오고 있다.

"제 화두는 'What is this(이것은 무엇입니까)'입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간의 화두는 'How to live(어떻게 살아야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탐, 진, 치 삼독심을 내려놓고 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론적 자문을 하게 됩니다. 수행자라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구하고 그 해답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What is this'라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 나라는 소아적(小我的) 존재가 아니라 연기법의 우주라는 대아적(大我的)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 법타 스님은 "간화선의 전통이 올곧게 계승되고 있는 곳은 한국불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간화선(看話禪) 내지는 화두선(話頭禪) 수행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는 간화선 수행 전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종선의 선풍(禪風)을 드날린 육조 혜능 대사를 기리고 있는 육조사의 스님들도 염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불교에는 안거 결제(結制) 때마다 수천여 명의 수좌들이 선원으로 몰려드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좌들이 화두 타파를 위해 용맹정진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수좌들은 물론이고 불자들도 사교입선(捨教入禪)의 이치를 숙고해야 합니다. 사교입선이란 일정한 교리 연구를 마치고 나면 선 수행에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 수행에 앞서 일정한 교리 연구를 마쳐야 한다는 선행조건입니다. 수행을 운전에 비유하면 교리는 내비게이션 내지는 이정표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말도 듣지 않고 도로의 이정표도 보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이르고자 하는 목적지 아닌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필자는 다시 한 번 경내 영산전에 가서 526위의 나한상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즐거운 듯 살포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나한, 뭔가 기쁜 듯 환히 웃고 있는 나한, 뭔가 아쉬운 듯 멍한 표정의 나한, 뭔가 슬픈 듯 수심이 깊은 표정의 나한…. 나한들은 모두 친근하다 못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게 했다. 어디서 봤을까? 나한들은 반만년의 숨결이 깃든 우리 민족의 얼굴일 것이다. 그리고 번뇌 속에 사는 중생들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한 불보살님들과 조사님들의 얼굴이기도 할 것이다.

유응오 / 작가

5년 간 안양시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 심리 이해



신 청 안 내

수 강 료 : 무료교육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 상 :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 (선착순 35명)

기 간 : 5월 2일 ~ 6월 2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 소 : 한마음선원 경내 한마음과학원 3층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문 의 : 031-470-3200, 3198 매주 월요일 휴무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hansi.org)에서 신청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